

Zola 생운 1

-개념의 모든 것-

II. 문제 모음



오르비 인강 교재(<https://class.orbi.kr/>)

교재 구성의 '특이' 사항과 Zola의 의도

Zola 생운 1의 교재는 총 2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I. 자료 모음

II. 문제 모음

각각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I. 여러분이 챙겨가야 할 교재는 《자료 모음》입니다.

n회독 하십시오! Zola의 자랑거리이자 현강생(특히 고4 이상)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자료집입니다. 현 교육과정의 5종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물론이거니와 13년부터 시작된 생운의 교과서, 평가원 및 연계교재(ebs 수특과 수완) 자료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원전과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적절한 논문이나 대학 교재들까지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함께 다양한 형식의 연습 문제들을 실어서 여러분의 개념 부분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 주: 교과서 자료를 언급할 때 현행 교육과정(15 개정)은 교과서 출판사 '만' 언급하였고, 이전 교육과정의 경우 출판사-해당 교육과정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예) 비상교육 → 15 개정 비상교육 교과서임

비상교육-09개정 → 09 개정 비상교육 교과서임(09 개정은 16학년도~20학년도까지 해당하는 교과서임)

II. 《문제 모음》은 활용도가 높은 평가원 기출들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본 교재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평가원 기출입니다. 시중의 교재들을 보면 사실 문제를 바탕으로 개념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비추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좋은 문제들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좋은 문제는 평가원입니다. 여기에 학습에 도움될 만한 교육청 문제들과 ebs 및 사설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을 연습시키기 위해 '주관식'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본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들만으로도 시중의 기출 문제집 1권 분량이 됩니다(350~400문항). 따라서 여러분의 공부량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 언급한 자료 부분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기본 그 이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III. 개념 교재는?

Zola가 제공하는 개념 교재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필기 노트가 개념 교재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개념 정리 부분에 별표나 밑줄을 긋고 외우는 것으로 개념 공부를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의 참고서(ebs 포함)를 n회독을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개념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개념 정리는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강의 노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교재는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개념 노트를 만드세요. 만드는 법은 탐구 공부법 안내 인강인 '망하는 생운, 성공하는 생운' 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의 개념 노트를 만들고 그것을 수능 때까지 백지복습 및 n회독 하시길 바랍니다.

Zola의 교재가 그리고 강의를 올해 여러분의 입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열공+즐공=대박!!!

교재 목차

* 번호: 대단원-순서

예) 1-1 ⇒ 대단원 1단원의 첫 번째 주제라는 의미임.

1-1: 윤리학의 구분 --- 5

1-2: 동양 윤리+자연관 --- 8

1-3: 서양 윤리 --- 17

1-4: 도덕적 추론 --- 27

1-5: 토론, 말의 자유론 --- 29

2-1: 죽음관 --- 32

2-2: 인공 임신 중절, 안락사, 뇌사,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자살, 동물 실험) --- 35

2-3: 성·사랑 --- 41

2-4: 결혼과 가족의 윤리 --- 43

3-1: 직업 사상가 --- 48

3-2: 직업 윤리(기업, 전문직, 공직자) --- 51

3-3: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니부어) --- 53

3-4: 사회 정의의 분류(아리스토텔레스) --- 59

3-5: 분배 정의 --- 60

3-6: 소수자 우대 정책(차별과 역차별) --- 70

3-7: 교정 정의(형벌, 사형제) --- 71

3-8: 국가와 시민의 윤리(1) --- 79

3-9: 국가와 시민의 윤리(2) 시민 불복종 --- 86

4-1: 과학기술과 윤리 --- 94

4-2: 정보윤리+매체윤리 --- 96

4-3: 환경 윤리(서양의 자연관) --- 99

4-4: 환경 문제와 미래세대 --- 114

5-1: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 116

5-2: 의식주 윤리 --- 120

5-3: 다문화 윤리 --- 122

5-4: 종교와 윤리 --- 124

6-1: 갈등과 소통, 민족 통합 --- 128

6-2: 국제관계와 국제분쟁 --- 131

6-3: 국제 평화와 정의 전쟁 --- 134

6-4: 세계화와 해외 원조 --- 139

zola amazing 답 --- 146

1단원: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

1-1: 윤리학의 구분

1)[14-9-1] (가), (나)에서 강조하고 있는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윤리학은 이제 '하늘의 별'을 고찰할 것이 아니라 '밭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즉, 생명 윤리, 성 윤리, 생태 윤리, 정보 윤리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당위가 학문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는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 즉,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 엄밀히 탐구해야 한다.

<보기>

- ㄱ. 다양한 문화권에 존재한 관습들의 특징을 조사하고 기술한다.
- ㄴ. 현대 사회의 실천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ㄷ. '선하다', '옳다' 등과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 ㄹ. 우리가 따라야 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정립한다.

- | | | |
|---------|---------|---------|
| (가) (나) | (가) (나) | (가) (나)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 ④ ㄴ ㄹ | ⑤ ㄷ ㄹ | |

2)[17-9-1] 그림의 토론 주제에 대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그림 생략)

● 토론 주제: 윤리학, 그 주요 탐구 과제는 무엇인가?

갑: 저는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의 본질은 어떤 원리가 도덕적 실천을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을: 저는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실천적 문제에 적용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 ① 갑: 다양한 문화권을 탐방하여 각국의 실천적 관습을 조사해야 한다.
- ② 갑: '옳다', '유덕하다' 같은 도덕적 술어의 의미를 검증해야 한다.
- ③ 을: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탐구해야 한다.
- ④ 을: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 ⑤ 갑, 을: 의무, 공리, 덕성 등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도덕성의 기초를 정립해야 한다.

3)[18-수능-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도덕적 규범이나 원칙을 탐구하여 이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 도덕이 삶에 대한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어떤 문화나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이러한 입장이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추론에 대한 논리적 구조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②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탐구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 ③ 실천적 규범을 통한 도덕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 ④ 현실적 도덕에 대한 가치 중립적 설명의 필요성을 무시한다
- ⑤ 보편적 도덕규범의 이론적 체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19-9-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란 규범 윤리적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라는 문제부터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근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심을 갖고 생명 복제, 사회 불평등 등과 같은 실제적인 도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들의 입장이 고 생각한다.

- ①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 ② 당위의 학문이라는 윤리학의 본질적 성격을 간과한다
- ③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원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 ④ 규범 윤리학 이론과 도덕적 실천의 유기적 연관성을 간과한다
- ⑤ 도덕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5[20-수능-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은 윤리 이론의 탐구보다는 실제 삶에서 만나는 도덕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 이론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생명공학, 법학 등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을: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사람들이 따랐거나 따르고 있는 윤리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설명해야 한다.

- ① 갑: 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② 갑: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중시해야 한다.
- ③ 을: 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 ④ 을: 윤리학은 도덕 문제에 응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⑤ 갑, 을: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6[21-9-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사회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나) 윤리학은 역사적·문화적·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① (가): 도덕적 신념과 관습은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해야 한다.
- ② (가):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 ③ (나): 도덕 규칙이나 평가의 표준이 되는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④ (나):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 ⑤ (가), (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7[22-수능-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윤리학은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사회·문화적 변화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윤리학자들은 윤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명하는 일을 윤리학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 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간과한다
- ②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③ 현실의 도덕 문제에 윤리 이론을 응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과 인과 관계의 설명을 강조한다
- ⑤ 도덕 추론의 논리적 분석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임을 간과한다

8)[23-수능-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란 도덕 이론에 근거하여 우리가 당면한 실질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윤리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 ① 도덕적 담론의 논증 구조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강조한다
- ② 도덕 판단의 표준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을 강조한다
- ③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이상에 대한 규범적 탐구를 간과한다
- ④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위해 타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강조한다
- ⑤ 도덕규범이 형성된 인과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를 간과한다

9)[12-11교-고2, 주관식]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가)	윤리학의 여러 분야가 제시하는 도덕 판단의 정당화 방법을 적용하여 생활 속에서 논쟁이 되는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나)	순수한 지식의 체계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통해 현실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토대를 제공한다.

<보기>

- ㄱ. (가)는 생명, 정보, 환경, 사회 정의 등의 문제를 다룬다.
- ㄴ. (나)는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는 규범의 탐구를 중시한다.
- ㄷ. (나)는 (가)보다 실천적 영역의 도덕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 ㄹ. (가), (나)는 모두 도덕적인 행위의 옳음과 그름을 다룬다.

10)[20-10교-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의 주된 목표는 도덕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을: 윤리학의 주된 목표는 경험적 탐구를 통해 도덕 현상을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고 도덕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 ① 갑: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도덕 언어 분석에 주력해야 한다.
- ② 갑: 도덕규범을 정립하여 도덕적 삶의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 ③ 을: 도덕적 관행은 사실 판단이 아닌 가치 판단의 대상이다.
- ④ 을: 도덕 현상의 경험적 탐구로 당위적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
- ⑤ 갑, 을: 도덕 문제의 객관적 서술이 윤리학의 중심 목표이다.

11)[19-10교-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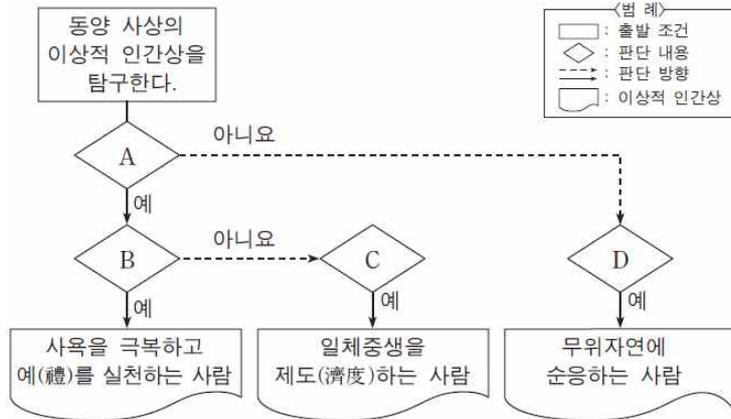
윤리학은 현대인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덕 현상의 과거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덕 현상을 서술하는 것에 그치는 연구는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사람들의 입장이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 ②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 ③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지침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 ④ 도덕 추론 과정의 논리적 타당성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⑤ 옳은 행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2: 동양 윤리+자연관

☞ Zola Guide (1)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추가·강화된 부분임. (2) 지식이 강함. (3) 이전 기출들을 보면 가끔씩 킬러들이 등장했으므로 주의해야 함. (4) 동양의 윤리와 자연관은 함께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임. (5) 처음에 낯선 용어들(한자어들이) 많이 나오므로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선임. (6) 자료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추천! (7) 개별 사상가 보다는 ‘사상’으로 크게 묶어서 공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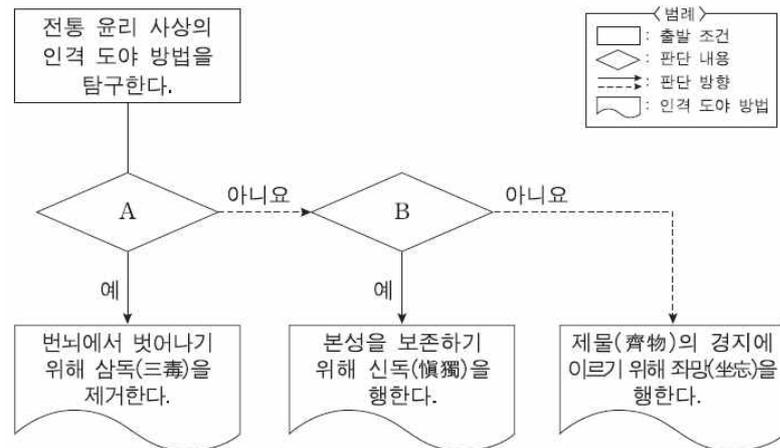
12)[14-6-12] 그림의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심재(心齋)를 통해 일체의 구속에서 벗어나려 하는가?
 - ㄴ. B: 수기(修己)를 통해 치인(治人)을 실현하려고 하는가?
 - ㄷ. C: 삼독(三毒)을 제거하여 자신의 본성을 깨치려 하는가?
 - ㄹ. D: 인위를 버리고 상선약수(上善若水)의 도를 따르려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14-9-6] 그림의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천리(天理)로서의 도덕적 본성을 따르는 삶을 지향하는가?
 - ㄴ. A: 연기(緣起)를 깨닫고 대중을 구제하는 삶을 지향하는가?
 - ㄷ. B: 수양을 통해 사덕(四德)이 구현된 삶을 지향하는가?
 - ㄹ. B: 물과 같은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삶을 지향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14-9-12] (가), (나)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인드라마는 끝없이 큰 그물로서 이음새마다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구슬이 자리 잡고 있다. 구슬들은 혼자 빛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구슬의 빛을 받아야만 세상을 밝힐 수 있다.
 (나)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아 모든 것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커다란 풀무*의 바람통처럼 비어 있으나 다함이 없다.
 *대장간에서 불을 지피기 위해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

<보기>

- ㄱ. (가)는 만물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生滅)한다고 주장한다.
 ㄴ. (나)는 자연을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 파악한다.
 ㄷ. (가)는 (나)와 달리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ㄹ. (가)는 인간과 자연의 엄격한 분리를, (나)는 합일을 추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14-수능-2]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괴로움[苦], 괴로움의 원인[集], 괴로움의 사라짐[滅], 그리고 괴로움의 사라짐으로 인도하는 방법[道]을 바른 통찰지로 보는 사람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나)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ackground-color: #cccccc;"></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A)</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ackground-color: #cccccc;"></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B)</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ackground-color: #cccccc;"></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background-color: #cccccc;"></td></tr> </table> <p style="margin-top: 10px;">[가로 열쇠] (A):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는 연속적이고 독자적인 특성. OO정체성 (B): 어떤 원인으로부터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인과적 □□성 [세로 열쇠] (A): …… 개념</p>									(A)			(B)								
			(A)																		
	(B)																				

- ①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질서 체계이다.
 ②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예법(禮法)의 기준이다.
 ③ 우주의 근원이며 원리인 도(道)가 구현된 질서이다.
 ④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 의존적 관계의 망(網)이다.
 ⑤ 인간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물리적 대상이다.

16[14-수능-16]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도(道)는 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나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제후나 국왕이 이 도를 지킬 수 있다면 천지 만물이 장차 저절로 변화될 것이다.
(나)	㉠. 그러면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삶을 살 것이다. ㉡. 그러면 물처럼 서로 다투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	㉡
①	인위(人爲)적인 가치를 버려라	자연의 흐름과 하나가 되어라
②	오로지 예(禮)만 들고 보아라	옳고 그름을 엄격히 구분해라
③	연기(緣起)의 법칙을 깨달아라	일체의 탐욕과 집착을 버려라
④	사사로운 마음(私欲)을 비워라	타고난 사단(四端)을 확충해라
⑤	거경(居敬)으로 덕을 함양해라	자타(自他)를 한몸으로 여겨라

17)[15-6-3] 다음 사상의 관점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발돋움하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스스로 나타내는 자는 뚜렷해지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나지 못한다.
-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옳음은 그름에서 말미암고, 그름은 옳음에서 말미암는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들로 말미암지 않고 자연[天]에 비추어 본다.

- ① 무위(無爲)의 원리를 실천하여 도덕적 본성을 확충한다.
- ② 욕심을 버리고 도(道)에 따르는 소박한 삶을 살아간다.
- ③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 열반(涅槃)을 지향한다.
- ④ 신독(慎獨)으로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간다.
- ⑤ 인위적 노력(僞)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한다.

18)[15-6-19] (가)에 반영되어 있는 사상적 관점에서 (나)의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OO에게 넌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안쓰러워하지. 그런 마음을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고 해.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 ...(후략)...
(나)	체육 대회를 맞이하여 A가 속한 학급 학생들은 점심 시간에 모여서 단체로 응원 연습을 하기로 결정했다. A는 점심을 먹은 후 쉬고 싶은 마음에 응원 연습에 참가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 ① 좌망(坐忘)을 통해 친구들을 편견 없이 대하도록 해.
- ② 서(恕)의 정신으로 친구들의 입장을 헤아려 행동해야 해.
- ③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정(禪定)을 닦아야 해.
- ④ 친구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허심(虛心)의 태도가 필요해.
- ⑤ 모든 친구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자비(慈悲)의 마음을 지녀야 해.

19)[15-9-3] (가), (나) 사상의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새벽에 잠을 깨면 마음을 고요히 하여 정돈한다. 마음이 세워졌으면 일어나 세수하고 단정히 앉아 몸을 단속한다. 이와 같은 수양으로 덕을 닦아 인의(仁義)를 지켜 나가야 한다.
- (나) 여러 인(因)과 연(緣)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法)이다. 단 하나의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을 공(空)이라고 말한다.

- ① (가)는 홀로 있을 때 삼가는 태도[慎獨]를 강조한다.
- ② (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한 바라밀의 실천을 중시한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친소(親疎)를 구별하는 사랑을 중시한다.
- ④ (가)는 삼독(三毒)의 제거를, (나)는 욕망의 절제를 강조한다.
- ⑤ (가), (나)는 사랑의 실천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를 것을 강조한다.

20)[15-9-11] (가), (나) 사상의 자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하늘과 땅은 사랑을 모르므로[不仁]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성인(聖人)도 사랑을 모르므로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나) 하늘이 사람에게 명령한 것을 본성[性]이라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며, 이 도를 닦아 나가는 것을 교화[教]라고 한다.

- ① (가)는 인간과 하늘을 상호 독립된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 ② (나)는 자연을 필연적 질서가 지배하는 기계적인 존재로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자연이 목적론적 체계로 구성된다고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하늘이 인(仁)과 같은 덕의 근원이라고 본다.
- ⑤ (가), (나)는 연기적(緣起的) 관점에서 자연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21)[15-수능-3]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물은 온갖 것을 섬길 뿐, 그것들과 다투는 일이 없다. 물은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기에 도(道)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다투는 일이 없으니 나무람 받을 일도 없다.

- ① 집착에서 벗어나 무욕(無欲)에 이르는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
- ② 선천적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예(禮)에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 ③ 자연 만물의 연기성(緣起性)을 깨달아 자비로운 삶을 추구한다.
- ④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독(慎獨)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 ⑤ 도덕적 본성의 확충을 위해 거경(居敬)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22)[15-수능-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가), (나) 사상의 자연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인(因)과 연(緣)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法)이다. 이것을 공(空)하다고 한다. 단 하나의 법도 인과 연에 따라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일체의 법이 공하다.

(나)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고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 하늘이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만물을 생겨나게 하니[化生], 천지 만물은 본래 나와 일체이다.

◎ 학생 답안

(가), (나)의 관점을 비교하면, (가)는 ㉠ 자연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보며, ㉡ 살아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나)는 ㉢ 하늘[天]을 인간이 따라야 하는 도덕 원리의 원천으로 보며, ㉣ 하늘 아래 만물이 무위(無爲)의 자연스러움을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 (가), (나) 모두 자연 만물을 상의(相依)와 화해(和譜)의 관계에 놓인 것으로 본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3)[16-6-4] 다음 사상의 자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고정된 자성(自性)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공(空)하지 않다고 하면, 아직 얻지 못한 것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며 번뇌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 털끝 하나에도 끝없는 대지와 큰 바다가 들어 있으며, 끝없는 대지와 큰 바다가 티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고통이 없는 해탈을 이루게 될 것이다.

- ①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生滅)하는 관계의 그물[網]이다.
- ②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예법(禮法)의 근거이다.
- ③ 인간의 이성으로 질서가 바로잡혀야 할 미성숙한 존재이다.
- ④ 인간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유기적인 무위(無爲)의 체계이다.
- ⑤ 인간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해 주는 도구적 가치의 총체이다.

24)[16-6-16]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덕이 있는 사람[德人]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아무 생각이 없으며, 움직일 때에는 아무런 근심이 없다. 옳고 그름[是非], 예쁨과 미움[美惡]을 분별하여 가슴에 담아 두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모두가 흡족해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긴다.																								
(나)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A)</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B)</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C)</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able> <p style="margin-top: 10px;">[가로 열쇠] (A):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마음 (C):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함. 예) “제사 드리기 전에 목욕○○하렴.” [세로 열쇠] (B): …… 개념</p>								(A)		(B)						(C)								
	(A)		(B)																						
			(C)																						

- ① 어짊과 의로움을 쌓아 자연의 순리를 따르려는 노력이다.
- ② 사욕(私欲)을 극복하고 예(禮)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 ③ 선(禪)을 수행하여 아름다움의 가치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이다.
- ④ 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해 마음을 깨끗이 비우려는 노력이다.
- ⑤ 지속적인 경전 공부를 통해 성인의 도(道)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다.

25)[16-9-5]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이다. 나는 미미한 존재로 그 가운데 살고 있다. 나는 천지의 기운(氣)을 나의 몸으로, 천지의 이치[理]를 나의 본성으로 여긴다.
(나)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겨나는[生] 까닭에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멸하는[滅] 까닭에 저것이 사멸한다.

- ① (가)는 만물이 지닌 생명력을 천도(天道)의 도덕적 표현으로 본다.
- ② (나)는 만물의 변화는 물질적 요소의 이합집산일 뿐이라고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천지를 가치중립적인 물리적 대상으로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천지를 질서가 없는 무위(無爲) 체계로 본다.
- ⑤ (가), (나)는 만물을 연기(緣起)에 의한 상호 의존적 존재로 본다.

26)[16-9-20]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친애하는 자는 인자(仁者)가 아니다.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자는 현자(賢者)가 아니다. 이(利)와 해(害)를 구별하는 자는 군자(君子)가 아니다. 명성을 좇아 참된 자기를 잃은 자는 선비(士)가 아니다.																																
(나)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A)</td><td></td><td></td><td></td></tr> <tr><td></td><td>(B)</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가로 열쇠] (A): 엘리아데가 제시한 '성스러움의 드러남'이라는 개념 (B): '자신을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함'을 뜻하는 사자성어 [세로 열쇠] (A): …… 개념</p>													(A)					(B)														
				(A)																													
	(B)																																

- ① 좌망(坐忘)을 통하여 일체의 분별 의식에서 벗어난 존재이다.
- ② 지혜를 갖추고 자비를 베풀어 중생(衆生)을 제도하는 존재이다.
- ③ 사욕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 도덕적 인격을 완성한 존재이다.
- ④ 덕과 형벌을 병행하여 왕도(王道)의 이상을 구현하는 존재이다.
- ⑤ 허심(虛心)에서 깨어나 모든 망상과 번뇌로부터 초월한 존재이다.

27)[16-수능-4]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들리지 않는 데에서도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 숨은 것처럼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미세한 것처럼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홀로 있을 때에도 항상 조심하고 삼가는 것(慎獨)이다.

- ①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예(禮)를 실현하는 삶을 추구한다.
- ② 인의(仁義)를 버리고 자연의 소박한 덕을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 ③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心齋) 천리를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 ④ 우주 만물의 무상함을 깨닫고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 ⑤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慈悲)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28)[16-수능-16]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본래의 마음(心)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면 그 본성(性)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하늘이 무엇인지(天命)도 알 수 있다.
(나)	사람은 땅을 법칙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칙으로 삼는다. 하늘은 도(道)를 법칙으로 삼고 도는 자연(自然)을 법칙으로 삼는다.

- ① (가)는 하늘이 인간 이외의 만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고 본다.
- ② (나)는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인 가치가 만물 속에 내재한다고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하늘이 만물에 법칙을 주는 최고 존재라고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하늘이 만물 위에 존재하는 절대 원리라고 본다.
- ⑤ (가), (나)는 하늘이 만물의 운명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라고 본다.

29)[21-6-2] (가) 사상의 입장에서는 긍정, (나) 사상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자신의 수양을 경(敬)으로써 하며,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이를 편안하게 한다. 요순(堯舜)도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항상 부족하다 여기고 노력하였다.
 (나) 배우면 날마다 쌓이고, 도에 따르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면 무위(無爲)에 이른다. 무언가 일삼으려 하면 오히려 부족하며, 일삼지 않아야 천하를 취할 수 있다.

- ① 만물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보아야 하는가?
- ②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③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규범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④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가?
- ⑤ 예법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30)[22-9-2]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이를 연기(緣起)라 한다.
 (나)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분별적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백배가 된다. 인(仁)을 끊고 의(義)를 버리면 백성이 다시 효도하고 자애로워진다.

<보기>

- ㄱ. (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ㄴ. (가):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 ㄷ. (나): 인위에 얽매이지 않고 도(道)에 따라야 한다.
- ㄹ. (가), (나): 인의(仁義)를 통해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1)[22-수능-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이름을 바로잡는 것[正名]이 정치의 시작이다. 이름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 예악이 흥성하지 않고, 예악이 흥성하지 않으니 형벌이 제멋대로 된다.
 을: 도(道)는 자연스러움을 본받는다. 인위적인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내버려두면 백성들이 스스로 잘 살게 되고 세상도 잘 돌아간다.

- ① 갑: 인간이 제정한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無爲)를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恕)를 행해야 한다.
- ③ 을: 자신의 직분과 지위에 걸맞는 예법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 ④ 을: 시비선악(是非善惡)을 구분하여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 ⑤ 갑, 을: 인(仁)의 시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다.

32)[23-6-2]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세 개의 갈대가 빈 땅에 서려고 할 때에 서로서로 의지하여야 설 수 있는 것과 같이, 식(識)도 정신과 물질을 인연(因緣)하여 생긴다.

을: 옳다는 것으로 인해 그른 것이 있고, 그르다는 것으로 인해 옳은 것이 있다. 진인(眞人)은 대립적인 말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대립을 넘어선 자연에 비추어 사유한다.

- ① 갑: 자아의식은 변하지 않는 실체임을 알아야 한다.
- ② 갑: 정신에는 집착해도 물질에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자기중심적 고정 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④ 을: 인(仁)을 실천하기 위해 사욕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⑤ 갑, 을: 내세를 위해 현세에서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

33)[23-9-2]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참된 사람(眞人)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성공을 뿔내지 않으며, 일을 도모하지도 않는다. …(중략)… 이로움[利]과 해로움[害]을 구별하는 자는 군자(君子)가 아니다. 명예를 위해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는 선비[士]가 아니다.

을: 군자는 의로움[義]으로써 근본을 삼고, 예(禮)로써 실천하며, 공손한 몸가짐으로써 표현하고, 신의로써 일을 이룬다. …(중략)… 군자는 죽은 뒤에 세상에 자신의 이름[名]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 ① 이상적 인간은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하는가?
- ② 이상적 인간은 시비(是非)를 판별하여 도(道)를 따라야 하는가?
- ③ 이상적 인간은 하늘의 명[天命]을 도덕적 실천의 근거로 삼는가?
- ④ 이상적 인간은 수양을 통해 백성의 편안함을 도모해야 하는가?
- ⑤ 이상적 인간은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자연을 따르는 사람인가?

34)[23-수능-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인(聖人)의 은혜가 만세에 베풀어져도 사람에게 특별히 치우치지 않는다. 친함이 있으면 어진 자가 아니며, 명성을 추구하여 참된 자기를 잃으면 선비가 아니다.

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 법(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 ① 갑: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 ② 갑: 사욕(私欲)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 ③ 을: 바른 수행으로 만물이 서로 독립하여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
- ④ 을: 연기법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변하지 않는 자아를 깨달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하늘이 부여한 순전한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35)[20-3교-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에게 사단(四端)이 있는 것은 사지[四體]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사단이 있는데도 스스로 인의(仁義)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이다.

<사례>

고등학교생 A는 등교 시간에 늦었지만,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도와주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자신과 남을 분별하지 않는 사랑[兼愛]을 실천하세요.
- ②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본성[性]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③ 순선(純善)한 본성을 형성하여 도덕적인 선택을 하세요.
- ④ 인위적 규범을 버리고 자연의 도(道)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⑤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여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발휘하세요.

36)[21-3교-18](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므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무명(無明)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생기므로 무명을 없애면 고통이 사라진다.
 (나)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 역시 저것에서 말미암게 된다. 옳음으로 말미암아 그릇됨이 있고,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옳음이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연(自然)에 비추어 생각한다.

- ① (가):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불성(佛性)을 형성해야 한다.
- ② (가): 원인[因]과 조건[緣]이 없는 존재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 ③ (나): 시비선악을 분별하면서 도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 ④ (나): 본성에서 벗어나 절대적 자유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 ⑤ (가), (나): 세상 만물의 가치에는 위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37)[22-7교-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게 되면 온 천하가 이 사람을 어질다고 할 것이다.
 을: 대도(大道)가 무너지니 인(仁)과 의(義)가 생겨났고 지혜가 나타나니 큰 거짓이 생겨났다. 육친(六親)이 화목하지 못하니 효와 자애가 생겨났다.

- ① 갑: 존비친소(尊卑親疏)의 구별을 전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② 갑: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을 헤아리는 서(恕)를 행해야 한다.
- ③ 을: 도(道)를 실현하기 위해 인의의 도덕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 ④ 을: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무위(無爲)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⑤ 갑, 을: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서는 수양을 통해 덕을 실현해야 한다.

38)[ebs 활용, 주관식] (가), (나), (다) 사상의 자연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모든 것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성인도 어질지 않아 백성을 모두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나)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그것이 멸한다.
 (다)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고 한다. 나는 그 가운데 혼연히 있다. 그러므로 천지(天地)에 가득 찬 기운은 나의 몸이요, 천지를 운용하는 원리는 나의 본성이 된다.

<보기>

- ㄱ. (가)는 자연을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 본다.
- ㄴ. (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만물이 생멸(生滅)한다고 본다.
- ㄷ. (다)는 자연을 유용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본다.
- ㄹ. (가)는 (다)와 달리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해야 한다고 본다.

zola amazing 답 + Zola Guide

[주의] 아래에

50%	28%	8%	4%	9%
-----	-----	----	----	----

와 같이 제시된 것은 선지 ①~⑤의 정·오답률(메가스터디 공개 자료)임. 단, 필요한 경우에는 ebsi 통계와 종로 내부 통계 자료를 일부 활용하였음. 문항 분석할 때 참고하시길 바람.

- 1) ③

5%	1%	48%	43%	3%
----	----	-----	-----	----
- 2) ④

2%	4%	1%	85%	7%
----	----	----	-----	----
- 3) ③

2%	2%	91%	3%	2%
----	----	-----	----	----
- 4) ⑤

5%	9%	8%	4%	74%
----	----	----	----	-----
- 5) ②

1%	92%	2%	4%	1%
----	-----	----	----	----
- 6) ②

3%	87%	3%	3%	4%
----	-----	----	----	----
- 7) ③

2%	2%	92%	2%	2%
----	----	-----	----	----
- 8) ③

9%	5%	72%	6%	8%
----	----	-----	----	----

9) 가, 나, 르

☞ Zola Guide =을 놓치면 분류법 다시 확인!

(가) 규범 실천, (나)는 규범 이론. 따라서 두 입장 모두 규범(=)임!!

- 10) ②
- 11) ③
- 12) ⑤

2%	5%	2%	9%	80%
----	----	----	----	-----
- 13) ③

5%	7%	68%	4%	16%
----	----	-----	----	-----
- 14) ①

80%	3%	10%	3%	4%
-----	----	-----	----	----
- 15) ④

9%	6%	6%	76%	3%
----	----	----	-----	----
- 16) ①

89%	2%	4%	3%	2%
-----	----	----	----	----
- 17) ②

22%	43%	16%	13%	5%
-----	-----	-----	-----	----

☞ Zola Guide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도가 제시문임. 이 제시문이 왜 도가인지는 개념 강의와 자료 교재에서 설명하였음.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선지 때문이 아니라 제시문 때문임.

② ‘욕심을 버림’이나 ‘도를 따름’은 동양 사상 모두에 해당 가능함. ‘소박’이라는 것에서 도가임을 확정할 수 있음.

- 18) ②

1%	79%	18%	0%	2%
----	-----	-----	----	----
- 19) ④

2%	1%	6%	88%	2%
----	----	----	-----	----
- 20) ④

15%	2%	2%	80%	1%
-----	----	----	-----	----
- 21) ①

88%	2%	3%	3%	4%
-----	----	----	----	----
- 22) ④

2%	2%	13%	77%	6%
----	----	-----	-----	----
- 23) ①

83%	3%	4%	9%	1%
-----	----	----	----	----
- 24) ④

6%	14%	7%	69%	4%
----	-----	----	-----	----

☞ Zola Guide 제시문 ‘도가’임. 분별하지 않는다는 제시문에서 읽어내면 됨.

- 25) ①

81%	3%	6%	6%	4%
-----	----	----	----	----
- 26) ①

26%	4%	59%	6%	5%
-----	----	-----	----	----

☞ Zola Guide 제시문 ‘도가’임. 이 문제의 제시문은 7년 후 23-수능에서 바나나들을 완전 저격했음. 34)번 [23-수능-2] 제시문과 비교해 볼 것.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동양 윤리는 제시문을 가지고 바나나들을 저격하니 우리들 속에 있는 바나나를 Zola 강의를 들으면서 제거하도록 수양(?)해야 함^^

- 27) ①

90%	2%	6%	1%	1%
-----	----	----	----	----
- 28) ③

4%	13%	75%	4%	4%
----	-----	-----	----	----

29) ③	2%	3%	82%	12%	2%
30) ③	3%	2%	87%	7%	1%
31) ②	1%	88%	4%	2%	4%
32) ③	5%	4%	76%	11%	4%
33) ⑤	3%	7%	7%	3%	80%
34) ①	31%	50%	2%	9%	8%

☞ Zola Guide (1) 선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갑’ 제시문을 유가로 착각해서 틀렸음. 갑 제시문이 왜 유가가 아니라 도가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임. Zola는 ‘anti 유가’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고, 그 방법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음. 이래는 수능 끝나고 만점 받았다면서 어느 분이 쪽지로 보낸 내용 중 일부입니다.

2번문제에서 갑의 입장을 도교가 아닌 유교로 착각한 학생들이 많아서 정답률이 20프로밖에 안 되던데
18분 전
선생님이 도가를 anti유가라고 설명해주신 덕분에 안 낙인 것 같아요...이지x 김종x 강의에는 절대 안 나오는 내용...

(ebs 기준으로는 정답률이 20%대임)

(2) 이 문제 틀린 분들은 바나나 제거 특강(Zola 생윤 O)에서 강조했던 기출 바나나가 되면 안 된다는 다시 한 번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갑 제시문은 기출 제시문이 재활용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강의에서 확인해 보세요.

35) ②

☞ Zola Guide 선지 ②와 ⑤ 오답률이 높았음. 전체적으로도 정답률은 50%인 문제였음.

36) ②

37) ③

☞ Zola Guide 정답률이 60%(ebs는 39%)임. 을 제시문은 도가인데 유가로 착각해서 그러함. 본 제시문은 자료 교재에도 있고, 수업 시간에도 어떻게 해석(독해)해야 하는지, 왜 유가가 아니라 도가인지 설명해줬음!

38) ㄱ, ㄴ, ㄷ

39) ②	2%	75%	2%	1%	21%
-------	----	-----	----	----	-----

☞ Zola Guide 1. 선지 ⑤를 선택한 분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하였음. (1) 개념 실수, (2) 독해 실수. 독해에 대한 것은 Zola 생윤 O(바나나 제거 특강)에서 다루었음.

☞ Zola Guide 2. 제시문의 사상은 벤담이다. 자료 교재에 실려 있는 제시문이다. 단,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공리주의자이네’ 정도로 해서 풀면 된다.

40) ④	3%	2%	2%	91%	2%
-------	----	----	----	-----	----

41) ⑤	2%	6%	6%	2%	84%
-------	----	----	----	----	-----

☞ Zola Guide 제시문은 ‘규칙’ 공리주의임. 아래 참고

[제시문] 사회에 더 큰 선을 산출하는 규칙
공리주의 + 규칙 ⇒ 규칙 공리주의

42) ④	2%	20%	2%	75%	1%
-------	----	-----	----	-----	----

☞ Zola Guide 선지 ②한 바나나 님들이 아래 설명 잘 봐두셈. 참고로 강의에서도 다루었음.

[제시문] 돈이 필요해 장기 이식을 스스로 결정한 행위
[분석] 목적 수단
정리하자면 ‘돈’이 목적이 되고 ‘나(장기)’는 수단이 됨. 이것은 칸트의 정언명령의 형식 중에서 인격성에 어긋남. 따라서 나는 인격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언명령에 따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자율성임.

43) ⑤	2%	7%	7%	1%	83%
-------	----	----	----	----	-----

☞ Zola Guide 제시문 확인. 의무‘에 맞는’과 의무‘이기 때문에(로부터 나온, ~에서 비롯된)’를 구분해야 함.

44) ⑤	4%	2%	2%	2%	90%
-------	----	----	----	----	-----